



2차 과제

3월 4주차 }
}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윤동주, '서시(序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밭오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三萬里).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三萬里).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울음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을로 가신 님아.]

(다) 박목월, '나그네'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南道) 삼백 리(三百里)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갈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문제 1] (가)~(라)에 나타난 '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94)

- ① (가) : '나'가 걸어갈 길로, 미래의 소명을 가리킨다.
- ② (나) : '님'이 떠나간 길로, 이별로 인한 회한을 불러일으킨다.
- ③ (다) :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로, 고독한 인생 여로를 암시한다.
- ④ (라) : '나'가 가지 않은 길로, 이상향에 이르는 길을 의미한다.
- ⑤ (가)~(라) : 인생이나 운명을 상징하는 길로 볼 수 있다.

[문제 2] 다음은 (가)의 시인을 회고한 글의 일부이다. 시는 곧 시인 자신을 반영한다고 할 때, (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것은? 295)

- ① 그는 읽는 책에 좀처럼 줄을 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그는 결벽성(潔癖性)이 있었다.
- ② 오뚝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일(一)자로 굳게 다문 입, 그는 한 마디로 미남(美男)이었다.
- ③ 그는 이처럼 마음 속에서 시를 다듬었기 때문에, 한 마디의 시어(詩語) 때문에도 몇 달을 고민하기도 했다.
- ④ 시국(時局)에 대한 불안,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가운데 하숙집을 또 옮겨야 하는 일이 겹치면서 그는 무척 괴로워하는 눈치였다.
- ⑤ 그의 성격(性格)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의 하나는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 3]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은? 296)

- ① 종환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그런데 농촌이 수탈된 마당에 술 익는 마을이 어디 있었겠어?
- ② 민희 :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아.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나그네처럼 먼 길을 힘들게 걸다가 노을을 찾아오고, 술도 한 잔 하고 싶고, 그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닐까?
- ③ 인규 : 술과 노을이라……. 그거 이미지가 썩 잘 어울리는데. 말발 길이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 ④ 석현 :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삼백 리나 이어지는 게 어디 있어? 구름에 달이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 ⑤ 정인 : 그런 걸 상상이라 하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의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문제 4] ㉠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297)

- ① 내 마음은 낙엽(落葉)이오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 ②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려운 길도
 아득한 출렁임 흔들림 밑에
 그것을 받쳐주는

-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가 마땅히 있는 일이라! (박재삼, 「사람이 사는 길 밑에」)
- ③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虛空)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 「초혼」)
- ④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유치환, 「바위」)
- 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낙화」)

[문제 5] ㉠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보기> 시의 화자가 들려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98)

<보 기>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는고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 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겠다고, 한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게나.
②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때그때 지름길을 택해 가게나.
③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법이네. 가장 중요한 목표를 기준으로 갈 길을 택하게나.
④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이 길을 가면 저 길이 부러울 테니 소신을 갖고 한 길만 가게나.
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지 않던가?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할 길이니 처음 선택을 잘 하게나.

시가문학 2

(가) 작자 미상,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줄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나) 홍량의 시조

뫼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窓)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다) 작자 미상의 시조

바람도 쉬어 넘는 ㉡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山)진이 수(水)진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매 쉬어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라) 허난설헌, '규원가'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싫다.
 세상(世上)에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약수(弱手) :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 이름

[문제 1] (가)~(라)의 공통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299)

- ①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덕을 송축(頌祝)하고 있다.
- ③ 민중의 적극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의탁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문제 2] (가)와 (라)가 동일한 화자의 노래라고 가정할 경우, (가)에서 (라)로 상황이 변한 데 따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300)

- ① 애초에는 망설였으나, 역시 보내 주길 잘한 것 같다.
- ② 입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
- ③ 처음에는 내가 입을 버렸는데, 이제는 입이 나를 버리는구나.
- ④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헤어질 때 왜 그렇게 애달파했을까?
- ⑤ 붙잡고 싶었던 입을 보내 주었는데, 어찌하여 소식조차 없을까?

[문제 3] (㉠)에 들어갈 알맞은 구절은? 301)

- ① 살어리 살어리랏다
- ② 선흐면 아니 올세라
- ③ 어마님 궂티 괴시리 업세라
- ④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 ⑤ 유덕흐신 님 여히와지이다

[문제 4] (나)의 시어 가운데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302)

<보 기>

안녕, 친구야.
네가 전학 간 지도 일 년이 지났구나. 그 곳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 보고 싶구나, 친구야. 내 마음을 편지와 함께 이 테이프에 담아 보낸다.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지.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는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이다. 너를 다시 만날 날이 무척 기다려지는구나.

- ① 뿔버들
- ② 님
- ③ 창(窓)
- ④ 밖
- ⑤ 밤비

[문제 5] ㉠ ~ ㉣ 중, ㉡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는? 303)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서시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줄기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윤춘삼 씨는 나를 다릿목 아래 어떤 가갯집으로 안내했다. 언젠가 하단서 같이 들렸던 집과 비슷한 차림의 주막집이었다.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나 다급하고 또 수다한 말들이 두 사람의 입을 한꺼번에 봉해 버렸다 할까!

“건우네 가족도 무사히 피난했겠지요?”

먼저 내 입에서 아까부터 미뤄 오던 말이 나왔다.

“야…….”

해 놓고도 어쩐지 말끝이 석연치 않았다.

“집들은 물론 결판이 났겠지만, 사람은 더러 상하진 않았던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 놓고, 이내 후회했다. 으레 하는 빈 걱정 같아서.

“집이고 농사고 머 있능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밭새 영감이 또 안 끌려갔능기요.”

윤춘삼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건우 할아버지가?”

나는 하단서 그 접넛패에게 얼핏 들은 얘기를 상기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꺼정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임더. 글 안 해도…….”

기진 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원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어제 있던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 둔 엉터리 독을 허물어 버린 얘기였다.

—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독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광없이 온 섬이 폐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밭새 영감이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훑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 섬 사람들이 한창 독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 독길에 검정 지프차 한 대가 와 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독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해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독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뭇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해 봐도, 들어 주긴커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밭새 영감의 팽이를 와락 뺏더니 물 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밭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야,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 놈들의 목숨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돌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밭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별써 그 때는 독이 완전히 몽개지고, 섬을 치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몽그적몽그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기요?”

계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별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異邦人)처럼 윤춘삼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㉔] 폭풍우는 끝났다. 60년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해 구제 의연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 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넘는 갈밭새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구월 새 학기가 되어도 건우 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整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문제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4)

- ①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 시점에 변화를 주어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 ③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인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등장 인물인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문제 2] 윗글의 주된 갈등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5)

- ① 심리적 갈등에서 오는 내적 갈등
- ②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
- ③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
- ④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 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제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은? 306)

- ① '나'가 건우의 집을 방문해서 학교에 나오도록 질책하는 장면
- ② 조마이 섬 사람들이 건우 가족을 위로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
- ③ 갈밭새 영감이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경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장면
- ④ 섬 사람들이 무너진 둑 사이로 빠져나가는 탁류를 보며 안도하는 장면
- ⑤ 윤춘삼 씨가 조마이 섬을 정리(整地)하는 군인들을 바라보며 허탈해 하는 장면

[문제 4] '갈밭새 영감'이 경찰서에서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며 경찰과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7)

- ① 갈밭새 영감: 비가 연 사흘 억수로 쏟아져서 독을 허물 수밖에 없었요. 만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조마이 섬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요.
- ② 경찰: 영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독을 허물고, 심지어 청년을 물 속에 태질까지 해 버렸요. 영감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요.
- ③ 갈밭새 영감: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청년들의 행동이 우리 조마이 섬 사람 모두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 ④ 경찰: 어쨌든 섬사람들은 다 살아 있지만 청년은 죽지 않았소.
- ⑤ 갈밭새 영감: 건우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섬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선 그를 밀칠 수밖에 없었요.

[문제 5]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08)

<보 기>

흔히 지식인은 '사회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의에 타협함으로써 지탄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식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일반 민중들에게 삶의 방향을 깨우쳐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개인의 영웅심에 사로잡힌 갈밭새 영감의 행동을 살신성인이라고 미화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 ② 언론은 사회 현실을 올바르게 주도할 수 있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니 안타깝군.
- ③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조마이 섬 사람들을 통해, 자연 재해가 얼마가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
- ④ 폭풍우가 지났는데도 수재 의견금이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보아 수재민을 돕는 따뜻한 동포애가 돋보이는 군.
- ⑤ 섬 사람들의 하소연은 소외된 민중의 소리라 생각해.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

서시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 상서(楊尙書)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후로 승전보가 계속 날아오자 황제께서 태후를 뵈고 양 상서의 공을 칭찬하여 가라사대,

“양소유의 공은 괄분양* 이래 제일인이라. 돌아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승상을 시키려니와 오직 어매(御妹)*의 혼사를 오히려 정하지 못했으니,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면 매우 좋겠으나 만일 다시 고집하면 공신(功臣)을 매양 죄주기도 어렵고 달리는 처치할 길이 없으니 이로써 염려하나이다.”

태후 가라사대,

“내 들으니 정씨 여자 매우 곱다 하고 양 상서와 서로 보았다 하니 상서 어이 즐겨 버리리요. 상서 나간 때를 타 정가(鄭家)에 조서(詔書)를 내려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함만 같지 못하도다.”

황제께서 침음하여 결정하지 못하시다가 가시거늘, 이 때 난양 공주 태후를 모셨더니,

“낭랑(娘孌)*의 말씀이 도에 어긋나오니 정씨 여자를 다른 집안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조정에서 지휘할 일이 옳니까?”

태후 가라사대,

“이 일은 너의 종신대사(終身大事)이니 본디 너와 의논하고자 하더니라. 양 상서의 풍류와 문체는 조정 신하 중에 비할이 없을뿐더러 통소 한 곡조로 인연을 접지 받은 지 오래니 결코 양 상서를 버리고 타인에게 구혼은 못할 것이오, 상서와 정씨 여자의 혼인 논의가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정분이 중하여 서로 버리지 못할 듯하니 이 일이 극히 난처한지라. 내 뜻에는 상서가 조정에 돌아오면 너와 혼인한 뒤에 정씨 여자로 첩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면 상서 말이 없을 듯하되 다만 네가 원치 아닐까 하노라.”

공주 아뢰되,

“소녀는 평생토록 투기를 알지 못하니 어이 정씨 여자를 용납지 못하리이꼬, 다만 양 상서가 처음에는 처로 폐백을 들였다가 뒤에 첩으로 취함이 예에 어긋나는 듯하고, 정 사도는 여러 대(代) 재상을 한 집이라 그 딸이 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듯하니 이 일이 마땅치 아닐까 하나이다.”

태후 가라사대,

“이도 마땅치 않으면 네 뜻에는 어찌코자 하나뇨?”

공주 아뢰되,

“제후(諸侯)에게는 세 부인이 있다고 했으니, 양 상서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크게는 왕이 되고 적어도 제후라, 두 부인을 둬서 외람치 아닐 듯하니 이로써 정씨 여자를 허락함이 어떠하나이꼬?”

태후 가라사대,

“이는 불가하니, 같은 여염집 여자는 한가지로 부인이 됨이 방해롭지 아니하거니와 너는 바로 선제(先帝)의 끼친 몸이라, 하물며 상이 사랑하시는 누이요 일신이 가볍지 아니하니 어찌 여염의 소소한 여자로 더불어 나란히 설 수 있으리요.”

공주 아뢰되,

“소녀 또한 소녀의 몸이 존중한 줄 아오되 옛 성스럽고 밝은 제왕(帝王)도 어진 사람을 공경하며 천자(天子)도 필부(匹夫)로 베타는 이 있으니, 소녀 물으니 정씨 여자가 얼굴 재조와 덕이 다 갖추어져 옛사람에게 내리지 아니리라 하니, 진실로 그러할진대 저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함이 무슨 혐의 있으리

이꼬, 비록 그러하나 전문(傳聞)이 실상에 지나기 쉬우니 소녀의 뜻에는 아무 길로나 정씨 여자를 보아 용모 재덕이 소녀보다 나오면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우러러 섬기려니와, 만일 직접 보아 소문과 같이 못할 양이면 첩으로 삼으나 종으로 삼으나 낭랑의 임의로 처치하소서.”

태후 이 말을 들으시고 차탄(嗟歎)하여 가라사대.

“여자는 본디 남의 재주를 꺼리거늘 너는 남의 재주를 사랑하니 가히 아름답도다. 너의 재덕이 옛 사람에 지나도다. 내 또한 정씨 여자를 보고자 하나니 명일에 당당히 정씨 여자를 불러들여 보리라.”

- 김만중, '구운몽'

- * 광분양 : 중국 당나라 장군
- * 어매(御妹) : 황제의 누이
- * 낭랑(娘娘) : 공주가 '태후'를 부르는 말

[문제 1] 윗글의 중심 화제는? 309)

- ① 전공(戰功)을 세운 양 상서의 포상 문제
- ② 정씨 여자에 대한 태후와 황제의 의견 대립
- ③ 공주의 혼인과 관련된 정씨 여자의 처리 문제
- ④ 여러 부인을 두는 제후(諸侯)의 결혼 풍습 문제
- ⑤ 양 상서와 공주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애정 문제

[문제 2] 윗글에서 '공주'가 '정씨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310)

- ① 용모와 재덕
- ② 세상의 평판
- ③ 학문적 소양
- ④ 가문의 지위
- ⑤ 종교적 배경

[문제 3] '공주'에 대한 '태후'의 태도를 잘 지적한 것은? 311)

- ① 공주를 과신(過信)하고 있다.
- ② 공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 ③ 공주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다.
- ④ 공주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 ⑤ 공주에 대한 맹목적 애정을 보이고 있다.

[문제 4] 윗글에서 '태후'와 '공주'가 주고받은 대화의 특징은? 312)

- ①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명분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다.
- ② 태후는 상황 논리를, 공주는 권위를 앞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③ 태후와 공주는 각자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④ 태후는 인정에 호소하고, 공주는 상식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 ⑤ 태후는 비유를 중심으로, 공주는 증거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 5] 윗글의 표현상 특징은? 313)

- ① 다채로운 수사로 화려한 느낌을 받게 한다.
- ② 재치 있는 언어 사용으로 미소를 띠게 한다.
- ③ 법도에 맞은 언어를 사용하여 기품을 느끼게 한다.
- ④ 어두운 느낌의 어휘를 사용하여 비장함을 느끼게 한다.
- ⑤ 시정(市井)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질박함을 느끼게 한다.

비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과 국가는 구성원들의 올바른 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요 수혜자이어야 할 국민들은 거꾸로 국가를 위하여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주요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主權在民)은 아직도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

㉢ 역사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 성장해 왔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그 열망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보화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판론이 대립하고 있다.

㉣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공개와 분산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고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쌍방향 통신을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며, 지역 정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임을 강조한다.

㉤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재구성된다는 사회 구성론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적 불평등 체제와 중앙 집권적인 지배 구조가 존속하는 한 정보화의 잠재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돼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개방성이 큰 ㉦포함적 정보의 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배타적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능력에서 정보 약자와 정보 강자 간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힘의 차이와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는 지역적으로 재생산되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측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가의 권력 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동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배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결국 민주주의는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이들은 경고한다.

㉨ 이들 두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되,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판론에 빠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기존의 비민주적 지배 권력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더욱 악용하려 들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여 시민 사회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문제 1]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314)

- ① 국가와 국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 ②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③ 민주주의의 성장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④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제 2] 윗글의 논지 전개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315)

- ① 개념 규정 → 대상 분석 → 요약
- ② 화제 제시 → 상반된 주장의 대비 → 절충
- ③ 주장 제시 → 사례 소개 → 주장의 재확인
- ④ 통념 소개 → 통념의 문제점 비판 → 새 이론 제시
- ⑤ 자료 제시 → 자료의 일반적 의미 소개 → 독창적 해석

[문제 3]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316)

- ① 요원(遙遠)하다
- ② 막연(漠然)하다
- ③ 적막(寂寞)하다
- ④ 소원(疏遠)하다
- ⑤ 냉엄(冷嚴)하다

[문제 4]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317)

- ① 초고속 통신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 ②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 ③ 인터넷 상에서 꼭 실명을 사용해 글을 쓰도록 권장한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 ⑤ 위험한 일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명 피해를 줄인다.

[문제 5] 문맥을 바탕으로 ㉓와 ㉔의 의미와 관계를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8)

- ① 접근이 쉽고 개방성이 크다는 설명으로 보아, ㉓를 ‘개방적 정보’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겠군.
- ② 수집과 생산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㉔는 모으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겠군.
- ③ 문맥상 ㉓와 ㉔의 차이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㉓와 ㉔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 개념이로군.
- ④ ㉓에서는 정보 강자와 정보 약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㉓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이겠군.
- ⑤ ㉔의 이용 능력이 빈부 격차까지 심화한다는 것으로 보아, ㉔는 경제적 부가 가치가 큰 정보이겠군.

비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리 꺼내도 쌀이 자꾸자꾸 차 오르는 항아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다. 신화의 세계에는 그런 쌀독이 얼마든지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신화(神話)를 들추어 보아도 이런 항아리가 등장하지 않는 신화는 없다. \ ㉠ / 신화에는 사람들의 원망(願望)이 ㉠투사(投射)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담에도 그런 항아리가 등장한다. 아무리 꺼내도 자꾸자꾸 먹을 것이 차오르는 '화수분 단지'가 바로 그런 기적의 항아리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쌀을 갈아 대는 '혼자 도는 맷돌'도 그런 기적의 맷돌이다.

(나) 신화란 신(神)이나 신 같은 존재에 대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 우주나 민족의 시작에 대한 초인적(超人的)인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창작(創作)되거나 전해지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신화는 상상력에 바탕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이다. \ ㉢ / 이처럼 신화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생산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를 보면 신화의 창조란 바로 '혼돈과 무질서'에서 '정돈과 질서'를 찾는 과정이다. 신화 창조를 통해 우주 만물은 혼돈에서 정돈되고,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이 영위(營爲)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신화는 단순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상상력은 또 생산적 창조력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든 모든 문명의 기기(利器)들은, 그것의 근본을 ㉣규명(糾明)해 보면 신화적 상상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 / 결국, 그것들은 인류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신화를 현실화한 것이다. 또한 신화는 고대인들의 우주 만물에 대한 이해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고, 나아가 신화 자체가 문학적 상상력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라) 신화적 사유(思惟)의 근간은 환상성(幻想性)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현실성을 무시한 황당무계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 / 그러나 이 환상성은 곧 상상력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풍부한 신화적 유산을 ㉦계승(繼承)한 민족이 찬란한 문화를 이룬 예를 서양에서는 그리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규모는 작지만 단군(檀君).주몽(朱蒙).박혁거세(朴赫居世) 신화 등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 역시 오늘날 이 작은 한반도에서 나름대로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 곧 신화가 그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마) 신화는 물론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기반하여 ㉧형성(形成)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나라마다 각각 다른 지리.기후.풍습 등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민족 특유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 /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중국의 신화는 신화적 발달과 사유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은 침범 불가능한 아폴론 신의 영역이지만 중국 신화에서는 후예(后羿)가 태양을 쏜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떨어뜨려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19)

- ① 신화가 지향하는 세계는 정돈과 질서의 세계이다.
- ② 신화는 상상력에 바탕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이해이다.
- ③ 풍부한 신화적 유산이 훌륭한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된 경우가 많다.
- ④ 신화에는 인류의 보편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별 민족의 특성도 반영된다.
- ⑤ 신화는 과거에는 문학적 상상력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우주 만물 이해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 2] 각 문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0)

- ① (가) - 신화를 인간의 소망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신화의 개념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다) - 신화적 상상력이 갖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환상성'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 ⑤ (마) - 신화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문제 3] <보기>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321)

<보 기>

오늘날 인류 최고의 교통 수단이 되고 있는 비행기도 우주와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려는 신화적 사유의 소산이며, 바다를 마음대로 항해해 보고자 했던 인간의 신화적 사유가 만들어낸 것이 여객선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장자(莊子)』에 나오는, 물길을 차고 높이 날아올라 순식간에 먼 거리를 이동한 곤룡(鯤龍)의 신화가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제 4] ㉠~㉤을 바꾸어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2)

- ① ㉠ 투사(投射)되어 → 던지어져
- ② ㉡ 창작(創作)되거나 → 만들어지거나
- ③ ㉢ 규명(糾明)해 보면 → 캐 보면
- ④ ㉣ 계승(繼承)한 → 물려받은
- ⑤ ㉤ 형성(形成)되고 → 이루어지고

[문제 5] <보기>가 타당성을 갖는 근거가 되기에 적절한 문단은? 323)

<보 기>

지난 계축년(119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 「본기(本紀)」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했었다. 세 번 거꾸 탐독하고 음미하여 차츰 그 근원에 이르고 보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중략)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신이한 변화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새로 세운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장차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를 지어 남겨서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이규보, 『동명왕편(東明王篇)』서(序)에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